

건강 칼럼

‘성장’을 위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 의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저신장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많은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다. 한의치료를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드물어 확정적인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 선행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침상년과 교수

2022년 관찰연구(Kim YJ, et al. Integ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children with idiopathic short stature: A STROBE-compliant case series. Medicine (Baltimore). 2022;101(28):e29754)에 따르면...

152.9cm에서 154.8cm로 증가하였다.
2018년 비교임상시험(Lee D, et al. Effects of Astragalus Extract Mixture HT042 on Height Growth in Children with Mild Short Stature: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hytother Res. 2018;32(1):49-57)에 따르면...

치보다 더 잘 크는 아이도 있고 그만큼 크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주 6~7회 피하주사로 투여되고 한약 치료는 경구로 투여하기 때문에...

식욕, 소화, 면역, 체력, 집중력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도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신장에 동반된 증상에 대한 동시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약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한약치료와 성장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면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성장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을지?
2023년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사용한 학위 논문(Lee B. Comparativ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Children with Idiopathic Short Stature: A Systematic Review, Network Meta-Analysis, and Retrospective Chart Review. Kyung Hee University. 2023)에 따르면 어떤 치료도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한 1년 성장 속도는 한약치료가 평균 2.31cm, 성장호르몬 치료가 평균 4.84cm, 한약과 성장호르몬을 동시에 한 경우가 평균 6.57cm 더 높다고 나타나...

사설

노인대학의 과제

전국의 노인대학이 최근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노인 지도자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운영이 중단됐고 지난해에도 인원을 축소해 개강했다. 올해에는 정원을 채워 정해진 시기에 입학식을 했다.
일부 노인대학에서는 최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개발한 교재도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해', '자기인식', '인문학' 등 새로운 교과목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문해'는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임으로써 일상에서 디지털 문맹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정보화 교육이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초 및 활용, 스마트폰, 인터넷 활용 강의 등이 있다.
'자기인식'은 발달이론을 근거로 노인들이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다. '인문학'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탐색하는 내용이다.
어르신들은 매년 진행되는 교양 강좌를 듣기도 한다. 건강 체조, 라인댄스, 문예부 등 원하는 대로 수강할 수 있는 노인대학도 많다. 어르신들이 배움의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는 곳도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직업 세계에서 더 깊은 공부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사회교육 활동에서 필요한 교육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함께 높아졌다.
'학무지경(學無止境)'이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다. 노인 지도자대학 등 평생교육이 국민 누구에게나 가능하도록 적극 나서기 바란다.

어느 남편의 연명 치료 거부

어느 60대 주부는 말기 암 환자 남편이 연명 치료를 거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평소 배려심이 깊었던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의료진에게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부인은 병상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왜 일찍 데려 가나..." 죽음을 앞둔 남편과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평소 "나는 몸에 코를 주렁주렁 달고 죽지 않을 거야"라고 여러 번 말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했다.
남편은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통해 가족 사랑과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다. '연명 치료 중단'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다. 연명 치료만 중단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한다. 반면 '안락사'는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 조력 사망' 법도 발의됐다.
시행 5주년을 맞은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 치료 중단 의향서(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4월 현재 1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미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존엄사'로 임종을 했다.
건강할 때 사전의향서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연명 치료 거부'는 본인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크라이나 곡물 항구 둘러보는 브링크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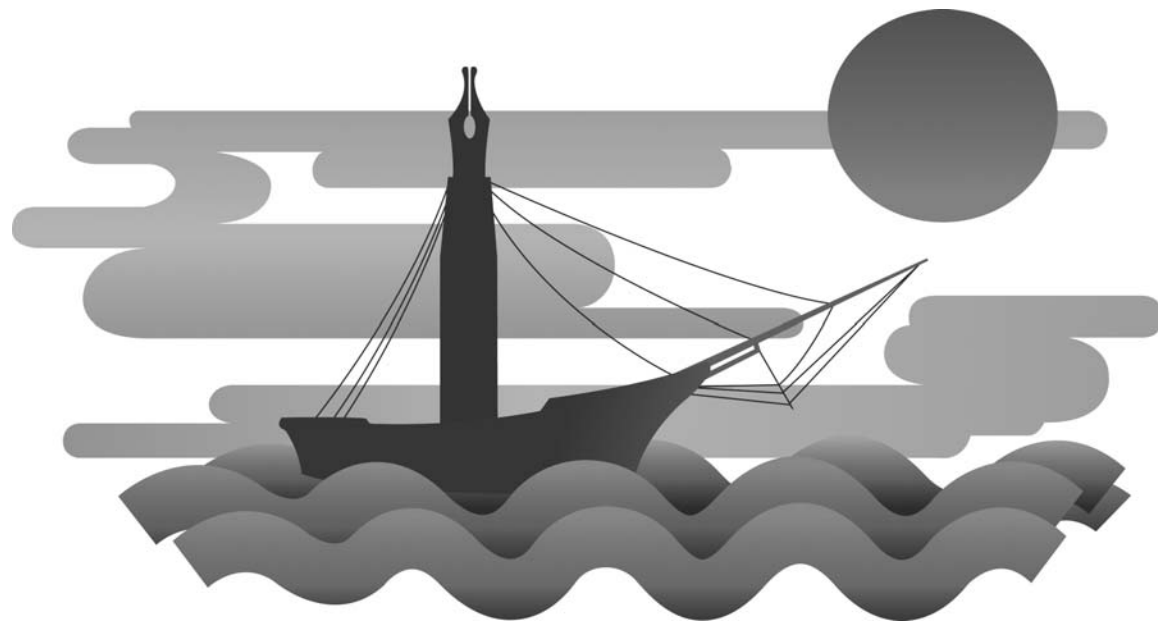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브리짓 브링크(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이즈미일의 곡물 항구를 둘러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중요한 시설인 이즈미일 항구를 방문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자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제 곡물 시장이 위협받게 된다.

홍수 대비하는 일리노이주 주민들



26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북서부 멀리 주민들이 미시시피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상점 앞에 쌓고 있다. 고산 지대의 눈이 녹으면서 미시시피강 수위가 높아져 주변 도시들에 홍수가 우려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